

| 회장 인사말 |

“선교가 교회의 희망이다”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 소장 최윤식 박사는 '2050 한국교회, 다시 일어서다'란 특강에서 "2050년이 되면 한국은 무신론과 이단의 나라가 될 가능성이 많다. 기독교가 이단에 추월 당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그러나 통일이 교회 부흥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서학자 박영호는 <마침내 교회가 희망이다>라는 책에서 교회가 본연의 부르심으로 돌아간다면, 위기의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희망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는 과연 희망이 있을까요? 얼마 전 전임 세션협 회장님의 원로목사 추도예배와 담임목사 취임 예배에 참석했다가 예배당 강대상 앞 배너에 이렇게 쓰여진 문구를 보았습니다. “선교가 교회의 희망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감리교세계선교협의회는 지금도 여전히 “이제, 선교가 교회의 희망이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미래가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탄식하기보다, 교회가 교회 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예수님이 그토록 소원했던 선교적 교회가 된다면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지난 몇 년간 선교에 있어 무궁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고국에 오면 쉼을 얻을 수 있는 “아펜젤러 세계선교센터” 리모델링, 위기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사 위기관리기금” 비축, 팜 흘리고 복음 전한 선교 현장의 사역을 격려하는 “감리회세계선교대상” 등이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선교 현장의 발전 모습입니다.

작년에 있었던 세계선교대회, 지역별 선교사대회, 세계여성선교사대회 등 교회는 선교와 선교사님들께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새롭게 듣고 있습니다. “이제, 선교가 교회의 희망이다”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하여 한 영혼이 예수님께 영혼의 닦을 내리고 안식을 누리고, 감격이 있는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심령이 뜨거워지며, 기도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 그것이 마침내 한국교회의 희망이 되고 부흥의 기틀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진인문 목사

‘선교지 재산 관리 및 이양’에 대한 논의



이강희 목사
(선교국
세계선교정책부장)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은 2024년을 시작하면서 ‘선교지 재산 관리 및 이양’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4. 2. 23(금) ‘선교지 재산 관리 및 이양’에 관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고, 24. 4. 19(금) ‘선교사회 임원과 나라별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선교지 재산의 전수 조사’의 필요성과 전수 조사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지금은 기독교대한감리회 홈페이지에 선교지 재산 전수 조사를 위한 교회용과 선교사용 설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수 조사가 마무리 되면 선교지 재산 관련 공청회를 실시하고 선교국과 파송교회와 선교사회가 합의된 지침을 만들어 선교지 재산을 관리하려고 합니다.

이와같이 선교지 재산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2023. 8. 21 한국교단선교실무대표협의회(한교선)와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가 <한국선교 출구전략과 이양정책을 위한 공동 결의서>를 발표하였기 때문입니다. 내용은 <우리는 선교지에서 형성된 모든 선교적 재산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공적 재산임을 인정하고 앞으로도 그 목적대로 사용할 것을 결의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35회 입법의회에서 <선교지 재산과 선교사에 관련된 내용>이 재판법에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제7편 재판법 제1장 일반재판법, 제4조 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법과 중 9항

[해외에 파견된 선교사가 국내교회가 설립하여 봉헌하고 지원하는 해외 소재 개척교회를 사전에 설립교회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그 교회와 부속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선교비를 정당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횡령하거나 기망 행위로 사취를 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이 법은 선교지에서 선교지 재산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불미스런 일이 생기게 되면, 교단에서 교역자의 법과로 다루어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한국 선교계에서 <선교지 재산 관리와 이양>에 대한 문제의식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이미 15년 전부터 시작되었으나 감리회의 경우 예민한 이슈인데다가 지금까지는 크



게 문제가 되지 않았기에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선교사의 연수가 높아지고 은퇴를 앞둔 선교사의 수가 증가하며 선교지에서 재산권에 대한 문제들이 대두되고 선교지 재산 관련 재판법이 신설되면서 선교지 재산 관리와 이양에 대한 논의를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현재 감리회 [선교사관리규정과 시행세칙]의 제14조 (선교사 재산관리)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선교지에 있는 모든 재산은 선교국 산하에 두며 선교지 특성상 선교사가 관리토록 하나 선교사가 임의로 처분, 정리, 매각, 증여, 교환할 수 없다.

단, 선교지 재산과 관련하여 변경사항이 발생될 시에는 소속교회, 후원교회 또는 후원단체의 협의하에 선교국의 승인을 받은 후 처리토록 한다. 불이행시 선교국은 선교사 행정관리 위원회를 소집하여 행정 처리방안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소속교회와 연회, 후원단체에 통보하여 정리토록 한다.

② 선교사가 선교활동과 관련해 구입하는 모든 재산은 개인 명의로 구입할 수 없으며 선교단체 또는 재단 명의로 구입하여야 한다.

③ 선교사는 재산등록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복사하여 선교사회와 선교국에 각각 1부씩 제출하여 보관, 관리토록 한다.

이러한 시행세칙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전수조사와 재산권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첫째, 선교지 재산에 대한 중요 자산 보유현황을 파악한다.

둘째, 선교지 재산에 대해 건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셋째, 선교지 재산 관련 선교사와 후원교회의 원활한 소통을 도와야 한다.

넷째, 선교사와 후원교회 간의 재산 관련 불미스러운 일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선교사의 은퇴 이후에 대한 논의와 대책을 준비하여야 한다.

모든 선교지 재산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공적 재산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기에 선교지 재산은 선교의 근본 목적대로 사용되어야 하고 투명하게 관리 이양되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것은 선교국과 파송교회와 선교사의 중요한 사명이며 책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선교지 재산에 대한 공통된 관리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선교지 재산관리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지며 특별히 선교사들에게 도움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 회원교회 |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브릿지^{Bridge} 교회



이현식 목사
(진관교회)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브릿지(Bridge)교회

2008년 3월, 진관교회에 부임한 이래 16년간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어나르는 다리(Bridge)의 역할'을 감당하는 '브릿지(Bridge)목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부임 당시 진관교회는 지역 전도와 복음화에 힘쓰던 기존 교회들과 다르지 않았습니

다. 2010년 말, 새성전이 완공될 무렵 교회 이름 변경에 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진관(津寬)'이라는 이름이 천년 사찰인 진관사에서 따온 명칭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선교, 영혼 구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땅끝인 온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리(Bridge)'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후 '진관(津寬)'이라는 이름을 다시 살펴보니 "나루터 진(津), 너그러울 관(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실어나르는 항구"라는 뜻이었고 여기에서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다리(Bridge)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바로 '진관교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진관교회'라는 이름에 자부심을 갖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온 세상에 실어나르는 '브릿지(Bridge)교회'로서의 사명을 지금까지 감당해오고 있습니다.

브릿지(Bridge) 사역 - 전도와 선교

진관교회의 '브릿지(Bridge) 사역'은 크게 '전도'와 '선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전도적인 측면으로는 '행복전도대'가 있습니다. 2008년 당시 은평뉴타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300여명의 교인 중 135명이 행복전도대원으로 세워졌고, 은평뉴타운 지역에서 매일 전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연회로부터 3년 연속으로 최우수 성장상을 수상하게 되었고, 이후 지금까지도 전도에 힘쓰며 매년 지속적이고 꾸준한 성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선교적인 측면으로는 ‘해외교회건축’이 있습니다. 새성전 건축이 완공될 즈음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십일조를 드렸던 것처럼 진관교회도 십일조 교회를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빛’을 갠 심정으로 ‘해외교회건축’이라는 선교 비전을 품고 시작하였습니다. 첫 교회인 ‘우크라이나 국제선교센터’를 건축할 때만 해도 ‘해외 30개 교회건축’이라는 작은 비전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지 않아 교인들의 자발적인 헌신과 노력으로 30개 교회가 완공되었고, 이후 ‘30개 나라 교회건축’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정하고 현재까지 ‘해외교회건축’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진관교회는 해외교회 건축에 있어 5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교인이 있어야 한다. 둘째, 파송된 목회자가 있어야 한다. 셋째, 지역의 선교거점이 될 수 있는 교회여야 한다. 넷째, 진관교회는 건축과 봉헌 이후 모든 권리와 소유권을 현지 교회에 넘긴다. 다섯째, 선교사들을 통해 관리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교회를 건축한 결과 지금까지 단 하나의 교회도 쇠퇴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세상에 실어나르는 역할을 감당하며 건강한 교회로 부흥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관교회는 해외 26개국에 81개의 교회를 완공 혹은 건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해외교회 건축선교’

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보내는 선교사(Mission as Senders)

2022년부터 ‘나도 선교사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보내는 선교사(Mission as Senders)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관교회에 소속된 5명의 선교사와 선교지역을 위해 온 성도들이 함께 선교를 작정하고 매일기도, 합심(집중)기도, 선교헌금 등을 통한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진관교회는 ‘브릿지(Bridge)교회’로서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다리(Bridge)’가 되어 열방을 향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것입니다.



세션협 주최 지역선교사대회

감리교세계선교협의회는 2022년 여선교사대회(조지아), 아프리카권역 선교사대회(케냐)에 이어 2023년에는 남태평양 - 오세아니아권역 선교사대회(호주 아들레이드), 2024년 여선교사대회(제주도)를 주최하였다. 본부 선교국, 선교사회와 함께 준비하여 매년 지역선교사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선교대회로 모이고 싶어도 지역적 접근성과 재정 문제로 개최가 어려운 권역을 선정하여 아프리카와 남태평양 - 오세아니아권역 선교사대회를 개최하였다. 격년으로 진행되는 여선교사대회도 7회, 8회 모두 세션협에서 주최하였다.

선교대회를 주최하기 위하여 세션협에서 모금하여 대회를 진행하며, 태블릿pc, 화장품, 건강식품, 금일봉 등 많은 물품 후원으로 풍성하게 대회가 진행될 수 있었다.

들레이드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제1회 남태평양 - 오세아니아권역 선교사대회가 열렸다. 한국에서는 이철 감독회장, 선교국 태동화 총무, 세션협 진인문 회장 등 총26명이 참석하였다. 현지에서는 호주, 뉴질랜드, 피지, 솔로몬 선교사와 호주선교지방회 그리고 남태평양지방회 목회자 총 33명이 참가하였다.

[다시 일어나, 선교와 부흥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오세아니아권역 첫 번째 선교사대회이며, 선교사와 지방회 교역자가 함께 모이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영성 집회(이철 감독회장 진인문 목사 이영태 목사)와 특강(박영식 목사 김화순 목사)일정 그리고 아들레이드 시내 관광 및 국립공원 등을 방문하여 호주의 자연환경을 느낄 수 있었다.

1. 2023년 남태평양 - 오세아니아권역 선교대회

2023년 10월 30일(월)부터 11월 2일(목)까지 호주 아

선교대회 일정 후 한국에서 참석한 선교단은 피지(조남



선교대회 단체사진



피지 니사키와 비전칼리지 채플



주일연합예배



아들레이드 관광 단체사진

건 선교사)로 이동하여 선교지를 방문하였다. 1995년 개교하여 2025년 개교 30주년을 맞이하는 니시카와 비전칼리지를 방문하여 진인문 목사가 설교하며 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

다음날에는 나세세 감리교회를 방문하여 피지전통 환영식을 경험하고, 세미시 차기 감독(2023년)을 만났다. 세미시 목사는 2008년 개포교회 지원으로 감리교신학대학교에서 석사과정을 마친 이로 한국 감리회와의 친숙함을 표현하였다.

주일 연합예배는 비전칼리지 내에 있는 나임발레감리교회에서 이철 감독회장의 설교와 피지 지역주민들의 아름다운 찬양과 선교단의 특별 순서로 피지에서의 마지막 예배를 은혜 가운데 마쳤다.

2. 2024년 여선교사대회

제8회 세계여선교사대회가 7회에 이어 세션협 주최로 4월15일-18일까지 제주도(기적의교회)에서 개최되었다. 81개국 652명의 여선교사 중 29개국 95명의 선교사와 세

션협 회원 및 참석자들을 합하여 총 160여 명이 대회에 참석하였다.

각국 기를 들고 선교사들이 입장하며 대회의 시작을 알리고, 세션협 회장인 진인문 목사의 설교로 개회예배를 시작하였다. 오전 영성집회(천영태 목사 진인문 목사), 특강(이철 감독회장 김화순 목사 허은숙 사모), 저녁 부흥회(곽주환 목사 유영완 목사 이상혁 목사)와 찬양집회로 대회를 진행하였다. 강서지방 목회자들이 매시간 찬양을 인도하였고, 성현교회 간식팀이 쉬는 시간 마다 풍성하게 간식을 준비하였다. 조유원, 고광태, 손문성 선교사는 차량운행과 커피로 봉사하였다.

행운권 추첨을 통하여 모든 선교사들은 태블릿pc, 화장품, 안마기, 금일봉 등 선물을 받을 수 있었다. 여선교회전국연합회(회장 이정숙)에서는 선교사들에게 여비 봉투를 마련하여 주었다.

마지막 날에는 여행 일정으로 조별로 대형버스를 타고 절물휴양림, 워터쇼, 에코랜드를 방문하여 휴식 시간을 보내고 각자 사역지로 돌아 갈 수 있었다.



부흥집회



찬양집회



절물휴양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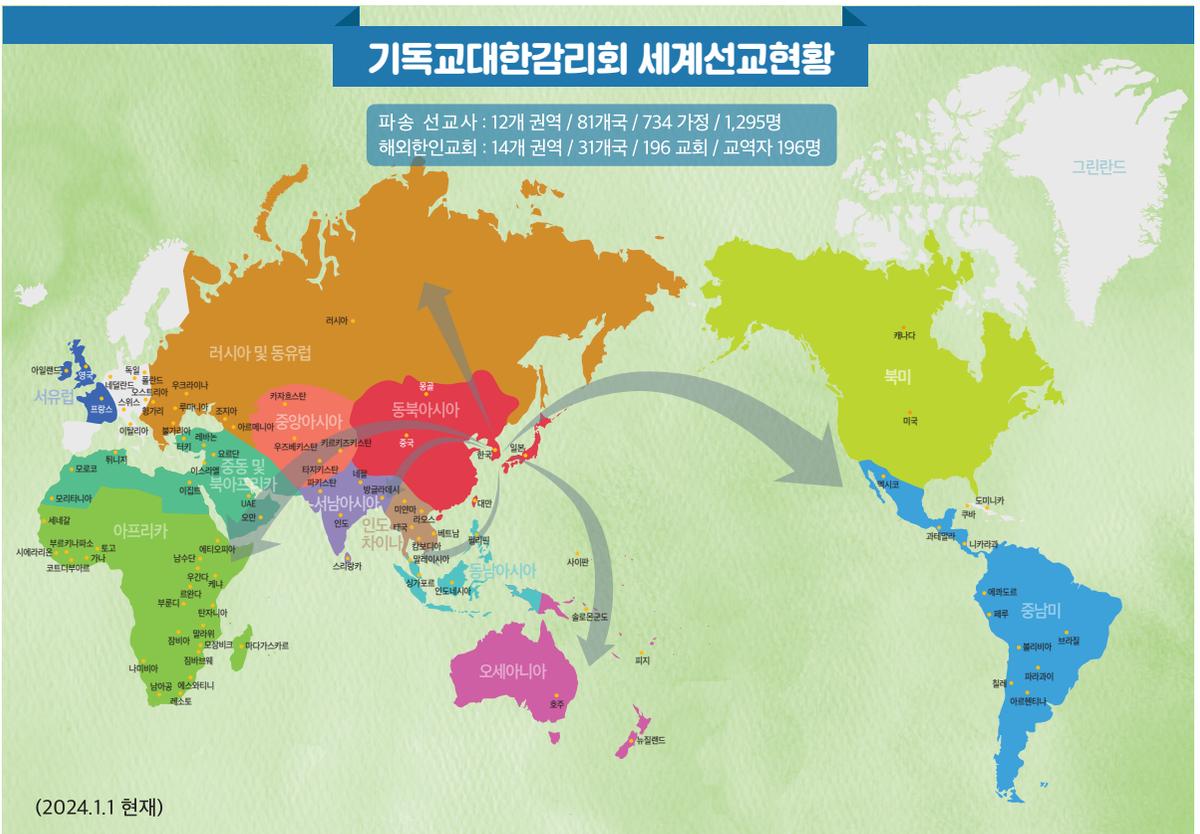


각국 전통복장 입은 선교사들

제1회 감리회세계선교대상 시상

감리교세계선교협의회에서 선정하는 제1회 감리회세계선교대상 시상식이 2023년 10월 25일 제35회 총회 입법의회가 열린 고성 벨피노 리조트에서 열렸다.

총 4가정이 지원하였으며 파송 기간, 선교지 상황 등 5가지 항목으로 나눠 심사하여 케냐에서 32년 사역 중인 안찬호 김정희 선교사가 수상하게 되었다. 임마누엘교회 파송으로 마사이 원주민 선교와 학교 사역, 지역개발사업 등을 주요 사역으로 한다. 상패와 함께 상금 1천만원을 세선협 회장 진인문 목사가 전달하였다. 안찬호 선교사는 상금에 대한 십일조를 선교사자녀장학재단에 후원하였다.



세계선교기금 운영 진행상황

감리교세계선교협회의 발의로 입법의회에 통과된 세계 선교기금 지원에 관한 임시조치법은 감리회 파송 선교사의 위기관리 및 복지, 세계선교 활성화를 위한 선교기금의 마련과 지원을 위하여 본 기금의 형성과 사용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2년, 23년 2년간 감리회에 소속된 모든 교회가 전년도 경상수입 결산액의 0.3%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다. (단 미자립교회는 제외)



1) 2022 세계선교기금

- 입금 : 2,126,777,603원(95.3%)
- 1차 정기예금 : 1,890,000,000원
- 운용기금 : 236,777,603원

2) 2023 세계선교기금

- 입금 : 2,169,393,345원(94.31%)
- 2차 정기예금 : 2,100,000,000원
- 운용기금 : 69,393,345원

3) 세계선교기금 현재 : 4,236,590,930원

- 정기예금 총액 : 4,050,759,820원
- 운용기금 잔액 : 185,831,110원

| 세선협 소식 |

정책협의회

- 2023년 9월14일(목)~15(금)
안면도 리솜아일랜드/세선협 임원
- 주제 : 변화하는 선교환경속에서의
감리교 세계선교정책 제안
- 세부주제
감리회 선교 주요 정책 개요와
이슈들(태동화 총무)
한국교회의 세계선교에 대한 성찰과 전망(황병배 교수)
팬데믹 이후 변화한 선교지환경과 선교사가 처한 도전들
(박신선 선교사)
현대선교와 비즈니스(이기현 목사)



성탄선물

세선협에서 31,351,535원 모금하여 부부파송은 가정당 5만원, 단독파송은 가정당 3만원 총 675가정에 전달



선교사자녀장학재단 후원

- 2024년 2월 20일 장학금수여식
- 중·고등학생 12명, 대학생 29명에게
- 총 7,000만원 장학금 전달

임원수련회

- 2023년 6월 19일(월)~23일(금) 대만
- 세선협 임원 및 회원 21명



| 세션협 임원 |

직책	성명				직책	성명
회장	진인문 목사				협동총무	남수현 목사
수석부회장	이영태 목사				서기	박영식 목사
고문	이철 감독회장				부서기	오인석 목사
	김종수 목사	김철한 목사	박상철 목사	원성웅 목사	회계	채규필 목사
지도위원	태동화 목사				부회계	이학수 목사
직전회장	이천휘 목사				선교신학부장	황병배 목사
부회장	강판중 목사	임학순 목사	곽주환 목사	장성배 목사	교육훈련부장	강희욱 목사
	김진홍 목사	차재일 목사	박명홍 목사	최상용 목사	정책개발부장	이상혁 목사
	박영순 목사	최종호 목사	이기철 목사	현인호 목사	국제협력부장	변종태 목사
	임용택 목사	황요한 목사	장성현 목사	이근희 목사	역사편찬부장	이상훈 목사
총무	이동성 목사				감사	이민준/이기현 목사

2024년 세션협 사업계획

감리교회세계선교대회	회장단	4월 중
뉴스레터 발행	홍보자료부	5월 중
정책세미나 / 정책협의회	선교신학부	9월 중
지역선교사대회	정책개발부	11월 중
임원수련회	교육훈련부	6월 중
선교사 성탄선물 보내기	역사편찬부	12월 중

감리교회세계선교협의회 정기회비 납부계좌

농협 : 100108-51-004186
 국민은행 : 514201-01-049245
 예금주 : 감리교회세계선교협의회
 문의 : 전제경 간사 ☎02)399-4370

| 감리교회세계선교협의회 회원 |

번호	단체명	대표성명
단체회원		
1	개척선교회	김영호목사
2	길찾는사람들	박성일목사
3	나고야선교회	김재훈목사
4	네팔선교회	김용선목사
5	네팔신학선교회	우병설목사
6	닛시선교회	이호성목사
7	도마동북아선교회	장성현목사
8	동남아시아선교회	김제광목사
9	동아프리카선교회	홍성천목사
10	동양선교회	지국찬목사
11	말라위선교회	박상철목사
12	몽골미션선교회	최이우목사
13	몽골선교회	이인선목사

번호	단체명	대표성명
14	발칸선교회	김충식목사
15	방글라데시선교회	김연규목사
16	베드로선교회	원영관목사
17	베트남선교회	임용택목사
18	북미인디언선교회	이상혁목사
19	북방선교회	정진권목사
20	빌립선교회	이성진목사
21	사모사랑선교회	황인자사모
22	샘물선교회	차귀열목사
23	서북선교회	최종호목사
24	서역선교회	유병돈목사
25	성광세계선교회	김홍식목사
26	스리랑카농아선교회	이호구목사
27	실론선교회	백용현목사

번호	단체명	대표성명
28	실크로드선교회	이용근목사
29	아랍선교회	김진홍목사
30	아시아선교회	이기철목사
31	아펜젤러세계선교센터	이상훈목사
32	아프리카선교회	서해원목사
34	열방능력선교회	김성수목사
35	영원한복음선교회	황우철목사
36	예영선교회	이영태목사
37	오메가선교회	장진희목사
38	올네이션선교회	박상철목사
39	요한선교회	김태식목사
40	월드미션선교회	전명구목사
41	웨슬리말레이시아선교회	김승룡목사
42	응암선교회	이기철목사
43	인도네시아인후선교회	강영철목사
44	인도네시아선교회	김태근목사
45	인도선교회	심원보목사
46	인도차이나선교회	박영순목사
47	인디아선교회	임상일목사
48	인천아시아선교회	조 혁목사
49	일본선교회	윤병조목사
50	정석선교회	김용석목사
51	중국복지후원회	장성현목사
52	중앙아시아선교회	강득환목사
53	케냐선교재단	서 철목사
54	케다선교회	강판중목사
55	쿠바선교회	김만오목사
56	태국선교회	이상연목사
57	필리핀선교회	황요한목사
58	한국미안마선교회	이민준목사
59	한국선교전략연구소	김종수목사
60	한-베트남선교회	권영규목사
61	형제선교회	김재찬목사
62	BIM	최병하목사
63	M-Center선교회	장성배교수

교회회원

번호	단체명	대표성명
64	중부/부평서/경인	김진규목사
65	서울/중구용산/광희문	차재일목사
66	중부/시흥남/군자중앙	박명홍목사
67	중부/고양/능곡	오인석목사
68	중앙/성남동/대원	임학순목사
69	중부/인천남/도화	최중섭목사
70	중앙/남양주/마석	이기현목사
71	경기/새광명/물댄동산	이명환목사
72	서울남/구로/베다니	곽주환목사
73	서울/강북/삼양중앙	손철산목사
74	중부/인천북/서광	이근희목사
75	경기/사강/서신	채규필목사
76	서울/노원/옥토	김창겸목사
77	충북/청주남/온누리	변종태목사
78	중부/인천서/운서	강희욱목사
79	중부/인천서/인천성산	이명준목사
80	동부/원주서/중부	이학수목사
81	서울/은평동/진관	이현식목사
82	동부/홍천동/청량	김학중목사
83	서울남/송파/하늘산성	박영순목사
84	충청/천안남/하늘중앙	유영완목사
85	경기/평택서/하북	진인문목사
86	서울남/구로/행복한	성 백 목사
87	협성대학교	황병배교수
88	서울남/강남/혜성	진대흥목사

개인회원

89	감리회본부	이철감독교회장
90		심원보목사
91		원성웅목사
92		이승호목사
93		이원규목사
94		이천휘목사
95		정진삼목사
96		최상용목사
97		황관하목사
98		현인호목사

제2회 감리회 세계선교대상 공고

- 1. 목적** : 존 웨슬리의 감리교 정신을 따라, 선교현장에서 파송교회의 선교비전을 구현하고 성실과 진리로 헌신해 온 감리회 파송 선교사를 치하함으로써,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선교적 모범을 기리고자 한다.
- 2. 시상대상** : 감리회 파송 선교사 1명
- 3. 시상금액** : 일천만원
- 4. 시상시기** : 연1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시에 시상)
- 5. 선정방법** : 감리교세계선교협의회가 정한 선발 심사 절차에 따라
- 6. 지원자격**
 - 1) 교리와 장정에 따라 감리회의 파송을 받은 선교사
 - 2) 선교지에서 무흠하게 만 20년 이상 선교사역에 힘쓴 자
 - 3) 파송교회(소속교회)가 선교사의 자격에 대해 충분히 동의하고, 추천하는 자
 - 4) 전방 개척, 현지인 목회와 훈련, 교육 사업과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 분야에서 탁월하게 선교적으로 공헌한 이
- 7. 우대조건**
 - 1) 나라별선교사회 또는 권역별선교사회의 추천을 받은 이
 - 2) 세계선교사관리규정과 세칙에 의거하여 선교국의 선교사역관리측면에서 모범적인 이
 - 3) 파송교회와 단체가 감리교세계선교협의회의 운영에 기여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한 이
- 8. 지원서류**
 - 1) 이력서
 - 2) 사역소개서
 - 3) 파송교회(단체) 추천서
 - 4) 선택서류-나라별(권역별)선교사회 추천서 (선교사회의 동의와 승인을 거친 추천서)
- 9. 접수방법**
 - 1) 서류 접수 : 매년 8월 말까지
 - 2) 우편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 03186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49 감리회관 16층 선교국 해외파트 (세선협) / servingmk@daum.net
 - 3) 문의 : 02-399-4370
- 10. 기타**
 - 1) 서류전형 후 면접이 필요한 경우,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 2) 접수된 서류는 전형을 마친 후 폐기합니다.